

“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 전면 개편” 발표에 대한 논평

“국세청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예방 조치를 환영하며, 부당공제 주범 삼쩍삼으로 인한 국민피해조사와 강력대응에 나서라”

- 국세청은 2024. 12. 5.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“연말정산 과다공제 예방하고 성실 신고를 지원” 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부당공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발표했다.
-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삼쩍삼 등 세무플랫폼이 2천만명에 달하는 연말정산자의 부당공제 환급신고를 통한 불성실-탈세행위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.
- 국세청의 발표내용에는 ‘소득기준 초과자 공제’, ‘기부금 부당 공제’, ‘부양가족 중복공제’ 등 부당공제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할 만큼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.
-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삼쩍삼 등 세무플랫폼들이 부양가족공제, 장애인공제 등 부당 인적공제나 소득세 부당감면 등에 대대적으로 나선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국세청에 고발하였는 바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.
- 하지만 세무에 대하여 무지한 납세자가 삼쩍삼 등 세무플랫폼의 유도광고에 속아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불성실납세자로 낙인찍히지만 막상 불성실신고를 주도하고 수익까지 올린 삼쩍삼 등 세무플랫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있다.
- 삼쩍삼은 지난 9월 발표를 통해 연말정산 공제누락 환급신청을 98만명 대행을 하였으며, 이를 통해 2024년 상반기에만 777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발표했다. 이는 실제로는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공제를 받게 해서 환급신청하고 환급받고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부당이득과 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.
- 국세청은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삼쩍삼 등 세무플랫폼이 연말

정산 공제누락으로 종소세 환급신고와 경정청구를 즉각 전수조사해 불성실-탈세 신고의 책임소재를 밝혀 납세자를 구제하고 오직 수수료수입을 올리기위해 나라 곳곳에 손대고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마땅히 응징해야 한다.

- 지금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불성실-탈세조장 세무신고로 인해 영세사업자와 봉급생활자의 세정에 대한 신뢰와 납세의식은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. 즉각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불성실-탈세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세무사회 주장이 잘못된지,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불성실-탈세신고에 나섰는지를 명확히 발표해야 한다.
- 만약 성실납세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이를 게을리한다면 오로지 900만 사업자와 2천만 봉급생활자 등 대부분의 납세자 국민을 먹잇감으로 불법수입을 올리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불성실 탈세행각은 더욱 확산될 것이며, 이를 차단하지 못한 엄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. 끝.

한국세무사회